

GRACE 선교소식

2025년 3월 GMI-GKC 선교사 현황: 63개국 337명 (자체 파송 75%)

2025년도 세계선교 마무리를 향해!

GMI 총재 한기홍 목사

이번 주, 저는 일천번째 새벽예배를 드리며 감사함으로 사역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월요일에는 GTD 207(남자)기 팀멤버들과 모임을 가졌습니다. 약 100명의 성도님들이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며 성령 충만한 가운데 말씀을 나누는 은혜로운 시간이었습니다. 이번 TD에도 큰 은혜가 임할 것을 확신하며 간절히 기도하고 있습니다.

화요일 오전에는 오랜만에 교역자 및 교직원들과 아침 예배를 드리며 '그레이스 타임'으로 말씀을 묵상하고 함께 은혜를 나누며 한 주간의 사역을 시작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저녁에는 그룹장 및 그룹 담당 교역자들과 모임을 가지

며 준비한 말씀을 나누고, 함께 기도하며 성령 충만한 시간을 보냈습니다.

수요일 오전에는 은혜평생대학 봄 학기 개강예배를 드리며 말씀을 전하고 성도님들을 격려하며 축복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우리 교회에서 운영하는 은혜평생대학은 정말 자랑할 만한 학교입니다. 시니어 성도님들이 매주 수요일마다 17개 다양한 과목을 선택해 공부할 수 있는 좋은 기회이며, 이렇게 훌륭한 강사진과 교육 환경을 갖춘 학교는 흔치 않습니다. 저녁에는 지도자 자질론 강의를 진행하였습니다. 제가 선교지에 있을 때에는 영상으로 수업을 하였는데, 참여하신 성도님들이 꾸준히 열심히 공부하는 모습을 보며 감사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목요일에는 상담 및 그룹 목사 모임과 총회 장로 교육을 진행하였습니다.

이번 주일 예배 후, 저녁부터 빅베어 수양관에서 GTD 207(남자)기를 인도하게 됩니다. 많은 성도님들께서 릴레이 금식 기도로 교회와



한기홍 목사님 사역일정

- GTD 207기(남자): 3/9-12
 - 국제총회 미주노회: 3/17-3/20
 - Grace Encounter
개강: 3/20, 주말 수양회: 3/20~4/10
- 목사님의 사역 일정을 가운데 영육간의 강건함과 성령충만을 위해 기도해주세요.

담임목사를 위해 중보해 주시니 큰 힘이 됩니다.

특별히 위기에 처한 대한민국을 위해 집중적으로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케냐

황광식 / 원지혜 선교사

케냐는 1월에 새학년이 시작됩니다. 저희는 올해 유치원 3반, 초등학교 1-6학년, 중학교 2학년까지 총 9개 학급에 450여명의 아이들과 함께 새학기를 시작하였습니다. 기존 캠퍼스에서 유치원과 초등학교를, 새로운 캠퍼스에서 중학교를 하고 있습니다. 작년에 하나님의 은혜로 2에이커 땅을 구입하였고 중학교 교실을 건축하였는데 차로는 5분 정도 거리에 있으며, 교사들은 공용 오토바이를 구입하여 타고 다니며 수업을 하고 있습니다. 1월에도 계속해서 입학문기가 왔지만 교실사이즈 대비 더 이상 인원을 늘릴 수가 없어서 대기명단에 올려놓은 상태입니다. 만 3세 베이비클라스는 작년 9월에 이미 등록이 마감되었습니다. 이제는 학교가 좋은 소문이 나서 다들 오고 싶어



하는 학교가 되었습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2018년에 유치원 3반으로 시작되었는데 오늘날 이렇게 큰 학교가 될 줄은 아무도 상상하지 못했던 일입니다. 여기까지 온 것이, 지금 이 자리에 서있는 것이 그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계획에 없던 중학교 캠퍼스를 주시면서 고등학교까지 비전을 품게 하셨습니다. 유치원부터 고등학교까지 영성과 실력을 겸비한 그리스도의 군사들을 키워내는 학교, 다음 세대를 살리는 학교로 쓰임받도록 계속 기도와 관심을 부

탁드립니다.

이번 주까지 신학교 강의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16-17기 70여명의 학생들이 공부하고 있는데 신학교 1기가 시작한 이래로 100번째 세선입니다. 학생들은 새벽기도부터 밤 9시까지 열심히 기도하며 배우고 있습니다. 신학생들이 오면 항상 물이나 전기문제가 발생하곤 하는데 지금 일주일 넘게 수돗물이 나오지 않고 있어 물탱크가 바닥을 보이고 있습니다. 수원지 인강에서부터 킬리피 전지역에 물공급이 되고 있지 않다고 하니 매일 아침 학생들에게 광고하여 물을 아껴쓰도록 하고 있습니다. 신학생들이 2주간 지내면서 각기 증상에 따라 약을 많이 찾기 때문에 저희는 항상 약국처럼 약을 구비하고 있습니다. 감사하게도 경산에서 내과를 운영하시는 원장님께서 매년 약을 보내주셔서 얼마나 유용하게 쓰이는지 모릅니다. 신학생들의 영혼육이 강건하여 귀한 사역을 잘 감당하도록 기도해주세요.

남아공

이은원 / 최정미 선교사

교회 소식

저희가 섬기는 원주민 교회는 여전히 같은 건물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러나 건물 주인교회의 부동산 담당 사무실과의 의사 소통을 한 후에 우리가 어렵게 수리한 것들에 대해 우리 교회에서 처음의 약속과 달리 응답을 하지 않고 수리 비용도 지불해 주지 않습니다. 그렇다고 기독교인으로서 법정에 가기도 싫은 데 말입니다.

지난 2024년 마지막 주일과 2025년 첫 주일에는 아프리카인 선교 교회의 당회가 열려서 지난 한 해 동안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와 기적들을 세어보면서 함께 감사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개인적으로 회의를 진행하면서 2024년에 소천하신 집사님들을 기억하며 아직도 그 자리에서 살아 생전처럼 예배를 드리고 웃는 모습으로 설교를 청취하던 그 얼굴들이 떠올랐습니다.

당회 시간 중에 교회의 각 부서를 다시 조직했고 당회에서 2025년 재정 담당 위원으로 아그너스 집사님과 아론 집사님을 선출해 주셨습니다.



2024년 교회의 1년 총 수입은 360만원이었고, 지출도 한 푼도 남김없이 되었습니다. 총 수입 중에 대부분은 부목사님의 월급과 우리 지역에 거주하는 가난한 가정을 돕고 있는 구제비, 그리고 약간의 교회 수리 비용과 헌금 봉투, 성찬식 때 구입한 포도주와 빵을 구입하는데 사용되었습니다.

2025년도 총 예산은 700만원 정도로 하기로 했으며 올해도 담임 목사인 이은원 선교사에게는 월급을 받지 않기로 했고 대신 부목사님의 월급을 지금의 100%로 인상시키기로 결정했으며, 2025년에는 예년처럼 저희 가정과 헤세드 프리 스쿨의 도움으로 매달 렌트 비용을 지불해주는 것에 대해 감사하며 그래도 올해는 우리 교회가 매 달 70만원을 지불해야 하는 렌트 비용을 더 많이 지불할 수 있도록 하고 결의했습니다.

교회 이름으로 오랜 기간 동안 지급되고 있는 “대학생 장학금”은 한국에서 후원하시는 분께서 보내 주시는 대로 이곳의 은행을 통해 장학금 대상자에게 그대로 전달하기로 했습니다.

2025년에는 열심히 전도해서 교회가 여러 모양으로 부흥하는 한 해가 될 수 있도록 저희 교회를 위해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헤세드 프리 스쿨

2024년에는 주님의 은혜 안에서 안전 사고를 비롯하여 인명 사고나, 도둑을 당하는 일없이 학교를 운영할 수 있어서 감사함으로 진행되었으며, 총 86명의 학생 중에 2025년에 초등학교로 입학할 34명의 졸업생을 내었습니다. 2024년에는 교통 사고를 당해 건강적으로 힘들었던 최정미 선교사가 힘이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열심히 교장직을 수행했고 함께 수고한 선생님들로 인해 좋은 결과가 있었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2025년 1월 13일에 남아공 교육부의 일정에 따라 학교가 개학되었으며 현재는 신입생 지원서를 접수하는 기간이기도 합니다. 올해도 많은 학생들이 신청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헤세드 구제 사역

지금 생각하면 지난 “Feeding scheme 사역”을 매주 월, 수, 금요일에 매번 수 백 명씩 대상으로 사역해 온 것이 주님의 은혜였다는 생각



이 들곤 합니다.

구제 사역이라는 것이 대상자를 향한 세심한 마음까지 가야 하기에 재정, 그리고 감염의 위험이 늘 함께 하기에 더 많은 기도와 함께 살아야 했습니다. 더구나 우리 부부도 구제하느라 힘이 드는데 도와주지는 못할 망정 기독교의 사랑과 사역의 목적을 배제하고 단지 수입이 없이 지출만 해야 하는 선교지의 일들로 치부하고 구제 사역을 접으라고 권면(?)하는 등, 사업적 관점으로 구제를 계산하는 사람들은 동역이 아니라 “복음의 원수”라는 생각을 가지게 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그런 사람들보다 저희를 위해 기도해 주고 후원해 주며 격려해 주시는 분들 때문에 많은 힘을 받고 있음을 고백합니다.

2025년에도 예전과 같은 횡수와 규모로 이곳에 살고 있는 병들고, 가난하고, 소외된 가정들을 위해 꾸준히 도울 것입니다. 이것 역시 여러분들의 기도가 절실히 필요한 사역입니다.

신학교 사역은 아직 시작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이은원 선교사의 건강 상태로는 한꺼번에 교회, 프리 스쿨, 그리고 신학교 사역들을 하기 힘들어서입니다. 그래서 원주민 제자 중에 후임자를 선정하려고 그들과 대화를 시도하면서 기도하고 있으나 주님께서 내 마음에 지정할 사람에 대한 마음을 주시지 않아 계속 기도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신학교를 운영할 수 있는 재정적인 상황이 전무하기에 이 또한 어려운 상황 아래 놓이게 되었습니다. 이곳 원주민 교회 지도자들에게 정말 필요하고 중요한 교육인데, 속히 신학 과정을 개설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탄자니아

이병철 / 박미란 선교사

2025년을 시작하면서 킬리만자로의 작은 마을 킬레오에 있는 저희 그레이스 센터를 운영하시는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모든 것을 하나님이 통치하심이 이루어지도록 기도하며 새롭게 시작했습니다.

서울 양재에 있는 코너스톤 국제학교 학생 17명과 선생님 5명으로 구성된 팀이 저희 베이스에 와서 4박 5일 동안 섬겨주었습니다. 교회와 유치원 외벽에 그린 그림은 전문가 뺨 칠 정도로 아름다운 벽화가 되어 이 시골마을에 랜드마크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선, 후배가 없는 평신도 선교사였기에 팀을 기대하며 기도한 지가 8년이 지나니 신실하신 하나님은 저희 기도에 응답하시고 저와는 어떤 연고도 없는, 코너스톤 학생들로 구성된 아름다운 팀을 보내주셔서 큰 일을 하게 하시니 너무 감사합니다.

킬레오 그레이스 교회 사역

아이들의 학교 방학이 끝나면서 친척집 또는



일 자리를 찾아 떠난 아이들이 집으로 돌아오면서 교회 아이들의 흐트러진 마음을 다시 잡아야 하는 과정이 쉽지 않지만 몇몇 성도들의 새벽 기도로 영적 재 무장하고 있는 중입니다. 작년 12월부터 한 두명으로 시작한 새벽기도가 이젠 10명 가까이 나오며 기도의 영적 부흥이 일어나고 있어 올 한해 기대가 됩니다.

킬레오 그레이스 학교 사역

작년에 유치원을 졸업한 몇몇 학생들은 초등학교 1학년으로 등록을 하고 유치원은 또 새로운 아이들로 채워지고 있습니다. 1월이 다 가도록 오지 않은 아이들을 위해 기도하고 또 새로운 아이들이 적응을 잘 하도록 기도 중에 있습니다. 저는 작년부터 시작된 교실공사와 책걸상

준비로 정신없이 바쁘지만 기도로 잘 마무리 되어가고 있습니다.

킬레오 공동체 사역

그동안 선거로 멈춘 보건소 건축이 빨리 진행되기 위해 또 군수를 만나고 건축 국장을 만났습니다. 빨리 진행되어 잘 마무리 되기를 기도합니다.

작년에 이어 매주 화요일 공립학교에 가서 종교 시간에 예배를 인도하는 중에 그들의 요구하지 않는 필요를 하나님은 계속 보여주십니다. 선교는 그들이 필요를 느끼지 못하는 곳에 가서 돕고 함께 하는 것이라 배웠기에 그들은 피부로 느끼지는 못하지만 개선하면 좋은 것들이 제 눈에 계속 들어옵니다.



탄자니아

정부진 / 조재숙 선교사

2008년 5월 5일 출발해서 탄자니아에 왔습니다. 비행기도 원웨이 티켓을 끊어서 왔습니다. 저희는 GMI 선교사 훈련원 1기로 사명감을 가지고 닥치는 대로 사역했습니다. 한국 집에도 2년 8개월 만에 갔습니다. 1달 기간으로 갔다가 돌아왔습니다. 선교지를 많이 비우면 안되는 줄 알았습니다. 모처럼 집에 갔더니 지쳐서 시차적응을 못하고 잠만 자다왔습니다. 아프리카 탄자니아에 GMI 를 모를 때 GMI 플랜카드를 걸어 놓고 우물을 파기도 했습니다.



김광신 목사님의 가르침대로 한마디로 죽기살기로 선교했습니다.

1. 선교는 하나님의 안타까운 심정입니다.
 2. 선교는 교회와 성도가 이 땅에 존재하는 궁극적인 목적입니다.
 3. 선교는 애국, 애족하는 길입니다.
 4. 선교는 하늘 나라 상급 쌓는 길입니다.
- 라고 가르치던 모습이 아직도 생생합니다.

선교는 기도, 선교는 전쟁, 선교는 순교라고 생각하시던 강영철 원장님!

이곳에 와서 부끄러운 선교사 되지 않으려고 이곳 사람들의 마음 문 여는 것이라면 모두 해보았습니다. 그렇게 18년 차가 되었습니다. 이 못난 자식이 선교사가 되었다고 좋아하시던 어머니는 전화할 때마다 꿈에 본 것 같다고 하셨습니다. 그 소리가 미안하고 듣기 싫어서 전화 연락도 잘드리지 않았는데 몇년 전 천국에 가셨습니다.

김광신 목사님처럼 천국에 가서 쉰다고 하다 보니 안식년도 못해보았습니다. 코로나 때 억지로 엄마와 아이들과 함께 지냈습니다. 김광신 목사님처럼 40년 선교지에서 보낼려고 합

니다. 앞으로 22년 남았습니다. 그럼 한국 나이로 87세입니다. 그때까지 건강하도록 기도 부탁드립니다. 특히 아내 조재숙 선교사를 위해서 기도 부탁드립니다. 몸이 아주 약합니다. 그저께 큰아들 작은 아들이 이곳에서 3주 일정으로 함께 지내다 갔습니다. 이젠 제가 자식을 그리워하며 눈물짓게 되었습니다. 자식들을 버려두고 나 좋아서 온 선교였지만 아이들 에겐 부모를 잃는 아픔과 상처가 있다는 것을 이제서야 깨닫고 미안함에 눈물이 납니다.

잔지바르에는 송규영 선교사님 부부가 있습니다. 저희 소개로 선교사 훈련원 5기로 교육 받으셨습니다. 학교를 짓다가 중단되었습니다. 저희도 코가 석자이지만 이번 기회에 잘 홍보 되어서 송선교사님네부터 후원을 받아 건축이 마무리된다면 하나님께서 더 기뻐하실 것 같습니다. 두 가정이 열심히 기도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중학교 건축을 위해서 10억 가량의 재정이 필요하지만 지금 1억을 후원 받아 놓았습니다. 저희 사역이 하나님의 일을 순간순간 깨달을 때가 많습니다. 우리 중학교 건축은 하나님께서 해주시라 믿습니다.

탄자니아

정현우 / 정슬기 선교사

Mbuga Nyekundu에서의 전도 여행

이번 전도여행은 센터에서 차로 2시간 거리에 있는 Mbuga Nyekundu라는 지역에서 진행되었습니다. 구글맵의 기준으로는 1시간 10분의 거리로 나오지만 오프로드를 따라 이 마을에 도착하기까지 2시간 이상이 소요되었습니다. 하지만 주민들의 따뜻한 환영을 받으며 그 피로는 사라졌고, 이 지역에 있는 영혼들과의 만남이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만남임을 다시금 깨닫게 되었습니다.

전도 여행은 오전 축호 전도, 오후 전도 집회, 저녁 영화 상영, 그리고 주일 예배까지 이어지는 일정으로 진행되었습니다. 오전에는 축호 전도를 진행했습니다. 선교팀과 현지 목회자들이 마을을 돌며 가정을 방문해 주민들과 직



접 교제하고 복음을 나누었습니다. 열린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자 하는 사람들이 있었고, 그들을 초청하여 오후와 저녁 집회에 함께하도록 안내했습니다. 오후에는 현지 교회 찬양팀의 찬양과 지역 교회 목사님들의 말씀 선포, 간증이 이어졌습니다. 찬양을 통해 마음을 여는 시간이 되었고, 간증을 들으며 눈물을 흘리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이 시간을 통해 주민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고, 저녁 영화 상영에 초청을 받았습니다. 저녁에는 복음 영화 상영이 진행되었습니다. 어둡해진 마을 한복판에서 스크린을 펼치고 영화를 상영하자, 주민들은 자연스럽게 자리에 앉아 하나님의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영화가 끝난 후, 복음이 선포되었습니다. 몇몇 사람들은 진지한 표정으로 말씀을 듣고, 마음이 열려 예수님을 영접하였고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전도여행의 목표는 단순한 복음 전도가 아니라, 전도된 사람들이 신앙을 지속하며 교회 공동체에 정착하도록 돕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 새신자들이 교회 안에서 신앙을 이어갈 수 있도록 주일예배에 함께 참여하고 교제하는 것이 중요하기에 이 지역의 교회들이 함께 연합하여 예배합니다.

전날 집회와 영화 상영을 통해 복음을 접한 주민들을 주일예배에 초청했고, 많은 분들이 예



배에 함께했습니다. 이 시간을 통해 교회 공동체가 새신자들을 맞이하고, 준비한 음식을 함께 나누며 자연스럽게 정착할 수 있도록 도울 수 있었습니다. 이 땅에 심겨진 복음의 씨앗이 자라나,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때에 아름다운 열매로 맺어지기를 기도합니다.

이음이의 유치원 생활과 수술 일정

이음이가 1월 27일부터 유치원에 다니기 시작하며 새로운 환경에 적응해 가고 있습니다. 언어도, 문화도 아직은 낯설지만, 배움의 과정 속에서 조금씩 성장해 가는 모습을 보며 감사한 마음이 듭니다. 이음이가 유치원 생활을 잘 이어갈 수 있도록, 그리고 언어와 문화에 자연스럽게 적응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세요.

또한, 이음이는 3월에 한국으로 가서 예정된 수술을 받을 계획입니다. 수술 일정에 변동이 없이 잘 진행되게 하시고 전신마취 수술이기에 수술 전까지 건강을 유지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세요.

보스니아

신운영 선교사

보스니아헤르체고비나에 온 지도 4개월이 지났습니다. 이제는 보스니아의 삶에 어느 정도 적응을 해서 살아가고 있지만 시간과 인내가 필요한 언어는 저를 늘 조바심으로 이끕니다. 그럴 때마다 저 자신에게 “잘 하고 있어. 그렇게 나아가는 거야. 너무 빠르지도 않고 느리지도 않고 그렇게 나아가는 거야”라고 격려를 합니다. 어느 순간 저 자신에게 주는 격려를 무시하고 조급함으로 나아가는 저를 발견합니다. 보스니아어를 공부하면서 변하지 않는 것은 전치사이고 나머지는 모두 변하는 것에 놀랄 뿐입니다. 명사 하나가 30가지 이상으로 변하고 형용사도 그에 못지 않게 변해서 처음에는 너무나 당황스러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공부하는 책 몇 권을 일단은 마쳤다는 것에

고사를 드립니다.

보스니아헤르체고비나는 주식이 빵입니다. 주식이 빵이 아닌 사람들이 이곳에서 사는 것은 많이 힘들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감사한 것은 음식으로 인해서 힘들어 한 적이 아직까지 한번도 없네요. 음식으로 사람의 정신상태가 피폐해질 수도 있다는 생각도 듭니다. 이곳의 저의 삶은 혼자 있는 시간이 많습니다. 친구를 사귀고 싶어도 개인적인 성향이 강한 사람들이라서 그리고 언어를 잘 구사하는 것이 아니라서 외로움을 많이 타면 굉장히 힘들겠다는 생각도 합니다. 그러나 아직까지는 잘 살고 있습니다. 어쩌면 이곳에서 살기 위해서 엄청난 긴장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음식에 대한 것도 혼자 있는 많은 시간도 견뎌내고 있는 것이 아닐까하는 생각이 들지만 주님께서 늘 저와 함께 하심이 실재가 되어서 별로 힘들다는 생각이 안듭니다. 오히려 낯선 삶을 즐기고 있는 여유가 있어서 행복합

니다.

신학공부석사과정(M div)을 그레이스미션대학교 (GMU)에서 하게 됩니다. 병행하는 것이 쉽지는 않겠지만 반드시 필요하다고 판단이 되어서 공부를 하기로 마음먹었습니다. 학비가 부담스럽지만 현지인들과 교제를 하고 말씀으로 양육시키기 위해서는 신학공부가 필수라고 보기에 2월부터 시작을 합니다.

현지 목사님이 1월 마지막 주에 유대인들을 교회에 초대했습니다. 처음에는 메시아니즘주인가보다 하고 생각을 했는데 나중에 “예수님을 구주로 믿나”하고 물어봤을 때 아니라는 대답을 들었을 때 놀랐습니다. 이유는 청중으로 초대를 해서 예배를 드리는 것은 괜찮지만 설교를 한 것은 강단을 더럽히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현지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를 하지만 이런 영적인 분별력이 부족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같이 기도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간증문

엘살바도르 인카운터 3기 단기 선교

조한나 권사 / G7

저희 그룹 7과 그룹 2의 그룹장이신 최은용 집사님 그리고 사진 영상 담당을 하신 조도현 집사님이 함께한 팀멤버들은 엘살바도르 인카운터 3기를 위해 1월 28일 선발대를 시작으로 29일 후발대와 합류하여 1월 30일부터 2월 1일까지 인카운터 3기를 하나님의 크신 은혜 가운데 잘 마치고 돌아왔습니다.

저는 2024년 1월에 인카운터 1기를 우리 그룹 7에서 주관하여 가는 것으로만 간주하고 함께 해야한다는 부담감을 갖고 합류하게 되었습니다. 더구나 과테말라나 온두라스 멕시코 엘살바도르 등 중앙 아메리카분들에 대한 나의 선입견은 우리에게 비즈니스상 도움도 주지만 많은 어려움도 주는 사람들로 기억되다 보니 별다른 기대감 없이 갔었고, 큰 은혜를 받지 못했던 시간이었습니다.

사실 2기 때에도 베트남 선교를 간다는 핑계로 참석하지 않았으나, 지난 9월 15일 저희 남편의 갑작스런 담석증으로 인하여 신장 투석 4번과 체장염증의 수치가 극도로 나빠져 병원에 4번이나 입원하고 치료하는 일이 있었습니다. 이를 치료하는 과정이 지금까지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저에게 엘살바도르 인카운터 3기를 가야한다는 부담감이 있었습니다. 먼저 선택하신 하나님의 믿음으로 바라보며 가겠다고

선포하였고, 떠나는 날까지도 여전히 건강이 나아지지 않았지만, 남편이 자기 걱정하지 말고 편안히 갔다오라는 말을 믿으며 선발대로 떠나게 되었습니다.

이번에 우리가 섬기던 Taber 교회는 목사님과 성도들의 자발적으로 자신의 교회에서 인카운터를 하고 싶다는 간절함을 외면하지 못하여 계획된 것이었습니다. 저희 팀멤버들은 준비하는 과정에서도 기대하며 준비하는 만큼 많은 영적 공격이 있었음을 팀멤버 분들께 들을 수 있었습니다. 이제 도착한 첫 날부터 Taber 교회 팀멤버들은 우리의 모든 것을 배우기 위해 열심을 다하며 계속 질문을 던지고 배우고자 하는 열정이 우리들을 감동하게 하였습니다. 심지어 우리가 중보기도하는데까지 들어와 함께 중보 기도 하였다것을 나중에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캔디데이트 한분도 즐지 않고 열심히 강의를 듣는 모습에 권상욱 목사님을 비롯하여 통역을 감당하신 권오운 목사님, 최용준 선교사님, 그리고 저희 팀멤버 모두에게 기쁨이 되어 서로 도움 주고자 열심을 다하여 노력하는 시간이었습니다.

이렇게 주말 수양회를 통하여 많은 캔디데이트 분들이 성령을 받았고, 졸업식이 지나고 많은 분들이 주일에 Taber 교회에서 함께 예배



를 드리고 마지막 찬양을 할 때였습니다. 권오운 목사님께서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를 선택하시는데 모든 성도님들이 자신들의 언어로 이 찬양을 불렀고, 오케스트라 팀이 연주를 하는 소리가 천상에서 합창하는 소리 같이 들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Victor 목사님께서 “당신들은 오늘 이후에 우리들과 작별하지만 언젠가는 우리가 천국에서 다시 만날 것을 확신하다”는 말씀에 눈물이 계속 흘러내리며 그동안 이분들에 대한 나의 선입견이 얼마나 잘못 되었는지 뉘우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자녀이고 하나님 안에서 하나됨을 깨우쳐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는 시간이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마지막 우리에게 말씀하신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는 말씀이 떠오르며 우리가 해야하는 것은 선교임을 다시 한번 깨달으며 앞으로 기회 되는 데로 선교에 동참하여 교회의 표어인 “모든 세대와 연합하여 땅끝까지”에 걸맞는 삶을 살아가길 다짐하는 시간이었습니다.

이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올려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영적전쟁에서 승리하는 자의 삶

<1분단상 137-3월호>

- 김대규 장로

오늘이라는 시간이 주어진 공간은 하나님의 임재가 있고 하나님나라의 이야기가 쓰여지고 있는 곳이다. 그러기에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과 연합되어 하나님 나라의 역사를 만들어갈 수가 있다. 다만 본인의 몫을 감당할 때에 이야기이다. 순탄한 것은 없다. 이는 이 시간, 이 공간은 반항적인 사탄의 역사도 거센 곳이기도 하기 때문이다.

그래서 영적 전쟁터이기도 한 것이다. 한 순간도 거르지 않고 지속되는 전장이다. 눈으로 보여 진다면 이 땅에 있는 어느 전쟁보다도 잔혹한 싸움인 것을 알 수 있을 것이다. 정해진 전선이 없다. 동시다발적인 전면전으로 치러지는 치열한 싸움이다. 이 전쟁은 어둠의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세력과의 싸움인 것이다. 이 싸움은 사탄의 유혹과 죄와 죽음의 통치에 맞서는 전쟁이다. 하나님의 사람은 반드시 이 싸움에서 승리해야만 한다. 하나님의 역사를 이어가기 위해서이다.

이 싸움에서 이길 수 있는 길은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고 의지하여 하나로 연합되어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으로(고후 10:4,5) 사탄과 그 무리를 파하는 것이다. 곧 주님이 주시는 전신갑주를 입고 기도와 말씀과 찬양으로 무장하고 승리하신 예수의 이름과 주의 보혈의 능력으로 담대히 악의 세력에 대적하는 것이다. 이미 하나님이 주신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고(마28:18) 주님이 십자가와 부활을 통하여 이겨 놓으신 싸움이다. 주님의 방법대로 행할 때 승리하게 되는 것이다. 따라서 믿음으로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하지 모른다.

영적전쟁에서 승리를 하면서 우리는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현존하는 하나님나라에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는 하나님나라의 법으로 살아야 한다.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 삶에 넘쳐야 한다. 이러한 삶을 산 믿음의 선진들을 보며 그들이 영적전쟁에서 어떻게 승리하였으며 하나님과 동행



하는 삶을 살았는가를 배우고 우리의 삶에 적용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러하기에 여러 믿음의 선진 중에서 다윗 왕을 말하고 싶다.

하나님은 다윗을 “내 마음에 합한 자이라 내 뜻을 이루게 하리라”(행13:22, 삼하13:14)라고 하시며 이스라엘 왕으로 세우셨다. 오직 하나님을 의지하는 중심(속사람)을 보신 것이다. 하나님께 인정받았지만 누구보다도 고뇌가 있었고, 생명위협, 전쟁, 기근, 압살롬의 모반, 밋세바 사건, 언약궤의 회수, 안정기에 이르기까지 파란만장했다. 그러나 그는 모든 일들을 감내하며 절망치 않고 하나님만 의지하여 회개와 회복을 통하여 영적전쟁에서 승리하며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산 것이었다. 하나님께 인정받는 것, 즉각적인 회개는 영적전쟁을 하고 있는 우리에게 꼭 필요한 무기이다.

다윗은 파란만장한 순간순간을 돌이켜 볼 때 어느 한순간도 하나님이 돌보시지 않은 경우가 없었던 것을 깨달았다. 모두가 하나님이 동행하신 은혜이었음을 알았다. 그래서 “여호와 는 나의 목자이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어라. 푸른 초장에 누이시며 쉼만한 물가로 인도하신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그분의 이름을 위해 의의 길로 인도하신다. 사망의 골짜기로 다닐 때에도 함께 계시고 그의 지팡이와 막대기로 나를 보호하신다.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베푸시고 기름을 내머리에 바르셨으니 내 잔이 넘칩니다. 나의 평생에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정녕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 집에

영원히 살겠습니다.”(시23편 참조)라고 자신의 신앙고백과도 같은 시로 하나님께서 모든 면에서 항상 보살펴주시며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며 풍요롭게 살게 되었던 원동력이었음을 고백하고 있다.

이 시를 통해 우리의 삶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은 우리가 한 치의 앞이 보이지 않을 때에도, 절망에서 일어설 수 없을 때에도, 기쁨 때에도 그 자리에 항상 함께 하셔서 우리를 지키시고 보살펴 주시고 계시다는 것을 확신케 한다. 따라서 다윗의 고백(시23편)이 우리의 믿음이 될 때 이것이 영적 전쟁에 필요한 원동력이 되어 늘 영적전쟁에서 승리할 수가 있다. 그리될 때 우리는 다윗과 같이 끝까지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가 되어 오늘이라는 공간에서 뿐만 아니라 내일의 공간에서도 하나님의 이야기를 써 내려가는 하나님의 사람이 될 것이다. 우리의 삶은 하나님이 주시는 의와 평강과 희락 속에 있을 것이다.



기도제목

선교지와 선교사님들을 위해 기도해주세요.



남아공 이은원 / 최정미 선교사

1. 이은원, 최정미 선교사의 건강 회복과 후원이 제대로 연결되어 사역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2. 같이 일하는 원주민 사역자들이 성령 충만함 안에서 소망을 가지도록
3. 이곳에서 헌신할 동역자들과 지속적이고 효과적인 후원 체계가 일어나도록
4. 정부로부터 2007년에 구입한 이곳의 종교 부지에 교회와 학교 건물이 세워지는 역사가 일어나도록
5. 교회와 학교 사역을 위해 필요한 미니버스를 속히 구입할 수 있도록
6. 맡겨진 일들을 지치지 않고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케냐 황광식 / 원지혜 선교사

1. 아버지의 심정으로 영혼들을 품는 사역이 되도록
2. 유치원, 초등학교, 중학교가 케냐 명문크리스천학교로 성장하도록
3. 남은 학교건축과 스쿨버스 한대가 필요합니다.
4. 신학생들이 잘 배워서 케냐뿐만 아니라 아프리카에 복음 전달자로 쓰임받도록
5. 예배당이 없는 곳에 성전이 건축되도록
6. 저희 세자녀들에게 지혜와 명철함을 주시고 배움의 길을 인도하시도록



탄자니아 이병철 / 박미란 선교사

1. 하나님이 보여주고 말씀하시는 것에 순종하며 그 일을 감당하도록 기도해주세요.
2. 하은이 양육권 소송이 잘 끝나 아이들이 엄마와 함께 살 수 있도록
3. 저를 이곳에 보내신 하나님의 목적을 이룰 수 있도록
4. 싱글맘 쉼터, 보건소 건축이 잘 진행되어 가난하고 보살핌이 필요한 사람들이 심을 얻도록
5. 킬레오 주민들이 하나님을 주님으로 모시고 믿음의 삶으로 변화되도록



탄자니아 정현우 / 정슬기 선교사

1. 전도된 영혼들이 교회 공동체에 잘 정착하게 하시고 전도 사역을 통해 복음의 물결이 계속해서 흘러가도록
2. 이음이가 유치원에서 잘 적응하고, 새로운 환경 속에서 언어와 문화를 자연스럽게 배워 갈 수 있도록
3. 한국에서 진행될 이음이의 수술 일정이 변동 없이 잘 진행되고, 수술 전까지 건강을 유지할 수 있도록
4. 현지인 교사와 함께 스와힐리어를 공부할 예정인데, 지혜와 능력을 더하여 주시도록



보스니아 신운영 선교사

1. 언어공부를 지치지 않고 꾸준히 잘 해 나갈 수 있도록
3. 정서적으로 무너지지 않고 더 주님과 말씀과 기도로 나아가도록
4. 신학공부 잘 시작하고 마칠 수 있도록
5. 현지 목사님의 영적인 분별력을 가질 수 있도록

선교현황 62개국 341명 (자체파송 74%) (2024년 10월 기준)

러시아 및 CIS

러시아 센 삐페르부르크: 조경호(명숙), 노보시빌스크: 김경순, 볼고그라드: 조익현(임문자), 첼라빈스크: 김봉년(미란), 사할린: 천병기(사라), 김성웅(지수), 날차: 주성길(손정순), 블라디보스토크: 서금순, 이르쿠츠크: 한성우, 타타르스탄: 주선민(손소미아), 하바롭스크: 정소남(미선), 우술리스크: 장석희(약사나), 로스토브: 최성목(혜옥), 블라고베렌스크: 은성식(김경희) **타지키스탄/아프가니스탄:** 최00 겸임 **아르메니아:** 백승환(올가) **아제르바이잔:** 임성식(김보화) **키르기즈스탄:** 강형민(숙진)

동북 아시아

한국: 정태호(정은주), 고은희, 김영진, 김에스터, 이기쁨(정은주), 최광(나미연), 남경애, 황영수(정경련), 오세민, 김광문(이용숙) **몽골:** 김연일 **중국:** 김00(송00), 장00(00), 김00(00), 박00(00), 이00(00), 조00(윤00), 유00, 정00, 장00(김00), 이00(소00) **대만:** 이계석(연희), 김성수(이순희) **일본:** 공영환(은자), 이종하(정혜겸), 송좌한(김정희), 정윤기(유미호), 박두희(이선희), 최대웅(권나현)

동남 아시아

베트남: 강00, 이00(장00), 강00(한00) **태국:** 김인기(박춘희), 임진섭 (양윤희), 심다솔(강애리), 박경덕(신미선) **라오스:** 신00(00), 천00(이00), 유00, 황00(전00), 제00(박00) **캄보디아:** 김동규(이승향), 김광석(이영미), 김영대(조정아), 안진호(안지연), 박효순(이영희) 손민지(이범신), 김길현(원경연) **필리핀:** 김인수(황소정), 성은식(김해경), 김적용(박영란), 박성용(미경), 김대영(김숙형) **미얀마:** 한00(김00), 강00(이00), 곽00(엄00), 유00(킨00), 전00(김00), 최00(김00), 김00(00)

서남 아시아

인도: 강00(이00), 한00(손00), 남00(마00), 남00, 정00(전00), 김00(이00) **네팔:** 김00 이00(00), 박00, 김00(오00), 오000 **인도네시아:** 기00, 한지영(김성용), 김태환(주애니) **파키스탄:** 정00(이00) **파푸아뉴기니:** 남영미(김운용) **방글라데시:** 곽00(김00), 강00(현00)

아프리카

케냐: 황광식(원지혜), 윤형로(미나), 강완식(조영순) **남아공:** 이은원(최정미) **시에라리온:** 김성림(배현란) **말라위:** 백영심 **모리타니아:** 박준용(한윤경) **탄자니아:** 정부진(조재숙), 여이주(최희정), 송규영(오효숙), 이병철(박미란), 정현우(정슬기), 오종성(박영숙), 조병훈(허선옥) **모로코:** 장원

중동

이스라엘: 김00(아00), 양00(00), 장00(최00), 유00(김00), 이00(00) 최00(아00), 강00(R 00), 김00(조00), 신00 **이라크:** 김00, 김00(00), 한00(00) **요르단:** 서00(00) 고00(00), 최00(00) **이집트:** 김00, 김00(양00) **레바논:** 정00(정00), 장00(서00)

중남미

아르헨티나: 김영선(박혜순), 유성두(강지애) 스텔라 **볼리비아:** 정은실(영자) **쿠바/칠레:** 안희진(구스타보)겸임 **쿠바:** 전재덕(이재순) **파나마:** 김재한(그레이스)겸임 **베네주엘라:** 김도현(강미애), 김재한(그레이스) 겸임 **과테말라/엘살바도르:** 최용준(재숙) 겸임 **브라질:** 한인승(선희), 하선(남성만) **콜롬비아:** 박재현(정은실) **멕시코:** 이종식, 송두선(양정연), 임한곤(이길선), 이준성(석화) **페루:** 최갑순(정미희), 박윤수(병순), 박세진(천희정) **파라과이:** 강성현(이경희), 김돈수(미정), 김정훈(남영자), 송길진

유럽

이태리: 박상연(병희) **오스트리아:** Markus Obermayr **영국:** 조성문(김애자) **독일:** Vitali Gerner, Musa Galiew, Jonatan Krüger(장아이린), 오철희(이문희), 문성은(그레이스), Chris Schell(임영임) **알바니아:** 오판석(정미라) **프랑스:** 송석배(김은영), 송준호(정희진) **불가리아:** 박정일(인실) **몰도바:** 정석영 **터키:** 김00(00), 공00(박00), 지00, 김00(00) 최00(이00), 전00 **우크라이나:** 김교역(주순), 김병철(진희) **그리스:** 신동덕(신미희), 이정식 **보스니아:** 신운영

북미주

미국: 양태철(현정), 강충원, 백원일, 홍충철, 김득원, 박명숙, 구본철(구영숙), 최미영, 황인주(정미), 정화미, 김형주(민지), 권종승, 박태수, 김정한 **캐나다:** 함상훈(명숙)

선교부 광고

1. 단기 선교 일정과 모집 안내

- 파나마 GMI 중남미 권역 선교대회 (3/24-3/27)
 - 추가 모집
 - 문의: 정민 집사 (714-900-4194)
 - TM: 3/12(수), 6:30pm, 웨딩채플
- 터키 난민 인카운터 1기 (3/13-3/23)
 - 추가 모집 4명
 - 문의: 김태형 집사 (213-393-3215)
- 아르메니아 아라랏 TD #17 (3/16-3/24)
 - S/L: 백승환 선교사
 - 렉터: 성재승 집사
 - 코디네이터: 박유진 장로
 - 문의: 박유진 장로 (714-334-4858)

- 터키 MEGL#15기 (4/20-5/1)
 - S/L: 한기홍 목사
 - 렉터: 남상우 집사
 - 문의: 이정호 집사 (213-500-7939)
 - O/T: 3/13(목), 웨딩채플
- 브라질 AFA #17 (4/28-5/5)
 - S/L: 송종호 목사
 - 렉터: 김요셉 집사
 - 문의: 김수영 집사 (213-446-9514)
- 인도네시아 개척선교 및 신학교 사역 (5/9-5/17)
 - 문의: 홍호철 장로 (562-900-4202)
 - 총무: 이정호 집사 (213-500-7939)

3. 의료선교국 주일 상담

매주 주일 10:00 - 11:15 AM
문의: 의료선교국

4. 이스라엘 회복과 부흥 및 쥬빌리 구국기도회

매주 토요일 오전 10시, 장소: WPC
문의: 현민정 목사 (714-732-2636)

5. 선교부 디보션 일정

매월 2, 4째주 주일 9:00 AM

6. 온라인 선교지 소식

WWW.YOUTUBE.COM/
@GMIMMISSION

WWW.FACEBOOK.COM/
GMIMMISSION

